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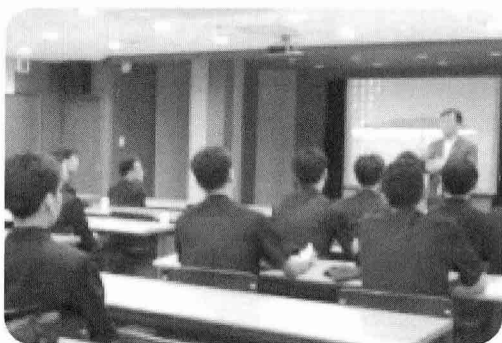
대전성모병원

제10차 호스피스 교육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팀에서는 지난 9월 7일(목)~9일(토) 3일간 본원 상지관 9층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위한 제10차 호스피스 교육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화상 신부님의 삶과 죽음의 강의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호스피스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더욱 심화된 다양한 돌봄의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생에게는 사랑의 행위 그 자체인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제 대상으로 3일간 호스피스 교육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팀에서는 지난 2006년 10

월 10일(화)~10월 12일(목), 성모관 9층 강당에서 부제님을 대상으로 3일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가졌다.

유현식 행정부원장 신부님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강의, 비디오시청, 본원 tour 및 전인 치료센터 현장에서의 돌봄견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빡빡한 교육일정 내내 부제님들의 진지한 태도와 높은 관심은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으며 아울러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대상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성모자애병원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미사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팀에서는 2006년 3월~10월까지 호스피스팀에서 돌보다가 임종하신 가족분들을 초대하여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미사를 2006년 11월 18일 성모자애병원 3층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사별가족과 호스피스팀 자원봉사자 분들 60여명이 참석하여 추모미사를 드리는 중에 현화 및 분향, 연도를 함께 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가신 가족분들을 생각하고 미사 후에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으로 조출한 음식나눔을 하면서 슬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성모자애병원에서는 2006년 10월 17~19일 3일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천교구 98개 본당에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

여 교육 받은 사람들은 69명(신규 39명, 현봉사자 30명)이었고, 교육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얘기하였다. 교육동안 봉사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교육 후 19명이 새롭게 봉사를 시작하고자 신청하였다.

### 아로마세라피 교육 실시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팀에서는 2006년 11월 4일~25일 매주 토요일마다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분들 대상으로 4주동안 아로마세라피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아로마향으로 고통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경감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교육받으므로 특별히 요셉방(임종방)에서 아로마 램프를 이용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자원봉사자 발마사지 교육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팀은 지난 8월 19일(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발마사지 교육을 시작하였다.

발마사지 강의는 말기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자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마다 7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발마사지 교육강사는 가톨릭 요셉 발건강회 정길현씨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봉사자들이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서로 맛사지를 해줌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발마사지를 배워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였다.



### 퍼진손 호스피스

### 제2기 가정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퍼진손 호스피스에서는 '제2기 가정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10월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5회

에 걸쳐 분당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실시하였고, 12월13일 부터 내년 3월까지 심화교육 및 실습에 들어 갑니다. 한편, 11월13일에는 호스피스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관,민,병원이 연계한 '성남시 호스피스 협의체' 가 결성되어서 성남시의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질 좋은 돌봄과 유기적인 도움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리놀병원

메리놀병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회  
「2006 MBC 사회봉사대상」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메리놀병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회가 「2006 MBC 사회봉사대상」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MBC 문화방송에서는 사회봉사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1992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공적 사항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회에서는 구정 임(안젤라) 수녀를 중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있는 말기 환자과 그 가족들이 오랜 병고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육체적,

영적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으로 전인적 돌봄을 통해 여생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 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회의 공적 내용으로는 성사돕기, 신체적 간호, 침상 주위 정돈, 식사 돕기, 검사 및 치료 동행, 음식봉사, 생활 필수품 보조, 가정 호스피스, 사별간호 등 1992년부터 시행해온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일반 자원봉사와는 달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손길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는「제 6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해 동안 한국의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모범을 실천해 온 메리놀병원 김귀자(모니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이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봉사자회는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나눔과 섬김'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역할에 헌신하고 있다.

문의 :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회

☎ 051)461-2265



평화 호스피스

다양한 활동

돌봄, 섬김, 함께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 호스피스에서 다양한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2006. 8.28. 기초교육 - 발관리교육 (봉사자 35명 참석)

2006.10.14. 군포시 시민대상(지역사회발전부문) 수상 - 전성민회장님

2006.10.23. 봉사자 연수검 단합회 - 강화도 전 등사 (봉사자 30명 참석)



협회소식



▲ 봉사자 연수검 단합회



▲ 기초교육-발 관리



▲ 시민대상수상-임원들과 함께

웃음요법



지난 9월 11일(월) 호스피스 심화교육의 일환인 『웃음요법』이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주관 하에 대전·충청 이남권 지역의 협회회원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웃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웃음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연자는 서울 제 7지구 소속의 김 점옥 간호사로 열 굴 근육 마사지 법, 웃는 방법, 서로 칭찬하는 법, 비디오 상영 등으로 진행하였다. 다채로운 강의는 이날 참석한 250여명의 회원들에게 웃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호스피스 활동의 실제적 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원의 많은 참여를 위해 서울과 대전지역으

로 나뉘어 개최되었으며, 서울·경기·강원지역 협회회원 대상의 교육은 9월 18일 성모병원(여의도 소재 4층 대강당)에서 협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연락처: 042) 220-9004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제 6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지난 2006년 11월14일(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4층 대 강당에서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주최 “ 제 6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본 협회 회장인 김혜자 수녀의 개회사 및 본 협회지도 신부인 이승찬 신부의 격려사와 함께 시작된 이 날 기념행사에는 전국의 많은 호스피스 봉사자가 자리를 함께하여 협회 회원의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또한, 말기환자 돌봄의 노고와 희생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호스피스의 봉사자의 공로상 수여와 함께 부상 및 금일봉 전달이 있었다.

곧이어 박준양 신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을 주제로 한 열띤 강의는 참석자들의 성숙한 호스피스 활동과 인간 삶의 성찰에 큰 자양분이 되었으며, 박근태 신부님의 미사집전을 끝으로 행사의 아쉬운 막을 내렸다.

〈제 6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공로상 수상자명단〉

- 김귀자 (메리놀병원)
- 김 미 (대전성모병원)
- 김영배 (성모자애병원)
- 배혜숙 (청주성모병원)
- 정길현 (성 가 병 원)
- 전성민 (평화호스피스)
- 최정례 (성가롤로병원)

☞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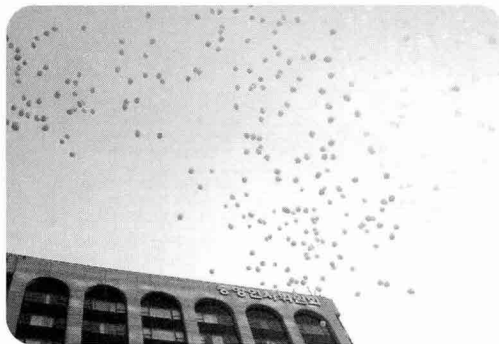
2006년 호스피스기관 대표자 워크숍 개최



2006년 11월 30일 오후 12시부터 5시 30분까지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주관 산하기관의 대표자 워크 샵이 개최되었다. 주제 I은 ‘호스피스법과 무의미한 치료중단의 문제’로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설정근 암관리팀장이, ‘호스피스 기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동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염창환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주제 II는 ‘호스피스 기금조성 방안’ 으로서는 강남 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부장의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모금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협회와 기관차원에서 의 역할에 대한 그룹토의를 가져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나누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범국민 걷기대회



2006년 11월 25일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는 전국 호스피스 관련단체와 연합하여 (한국호스피스 연합회로 칭함)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과 범국민 걷기대회>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였다.

호스피스제도화를 위한 큰 울림을 알리는 “두드락”의 대북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김혜자 한국호스피스연합회장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에 이어 이경식 한국완화의료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국가 암 정보센터 김희정씨에게 100만 서명서를 전달하고, 예쁜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이미지 개폐기 낙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양대 응원단의 리드로 준비운동을 한 후, 희망의 솟대 세우기 퍼포먼스, 희망의 풍선 날리기, 참가자 희망 날리기, 폭죽을 시작으로 “우리 함께 가요”를 기치로 하는 걷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부대 행사로는 다양한 호스피스의 기관별 소개 코너, 배너 전시, 호스피스 관련 사진들이 전시되었으며 호스피스의 범 국민적 이해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운영위원 명단

임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장	김혜자수녀	301-72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20-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	직)042-220-9004 HP)019-9193-3779 FAX)042-252-3325
부회장	유송자	153-841 서울 금천구 시흥5동 200-2 전진상 복지의원	직)02-802-9311 HP)011-9488-9313
	김민정	130-709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56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 병원 완화 의료과	직)02-958-2231 HP)011-9023-2284
감사	김남초	137-7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직)02-590-1061 HP)018-242-1289 집)02-407-0182
	정재숙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A, C동 805호	직)02-780-6977 HP)017-390-6977
교육분과장	박명희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직)02-590-4966 HP)019-259-8360
홍보분과장	박재순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직)02-590-1288 HP)010-7459-7190
국제분과장	홍영선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강남성모병원 종양내과	직)02- 590-1630 HP)017-230-6542 FAX)02-535-1682
총무	황영미	301-72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20-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팀	직)042-220-9004 HP)010-2734-8636 FAX)042-252-3325
회계	조영이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직)02- 590-1691 HP)016-724-8392